

고정 관념(stereotype) 활성화에 따른 촉진, 억제 효과 연구

최일호 · 한성열

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연구를 통해서 Dijksterhuis와 Knippenberg(1996)가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에 따른 반대특성 억제 가설을 회상과제를 사용하여 재검토 해보았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접화되었을 때 반대특성에 대한 억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탐색해 보았다. 연구1에서는 깡패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고정관념이 접화된 집단은 무점화 집단에 비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성은 더 잘 기억하고, 반대되는 특성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고정관념이 접화된 집단은 일치특성은 더 잘 회상하고 반면에 반대특성은 회상을 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의 접화는 일치특성에 대해서는 촉진 효과를, 반대특성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2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부정 연합의 가정과 달리, 외측 억제의 작용을 가정하여 왜 반대 특성에 대한 접근이 억제 되는가하는 문제를 탐색하였다. 두 가지 가능성을 판정해 줄 수 있는 절차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실험1의 결과와는 달리 고정관념 접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반대특성에 대한 회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반대특성 억제 현상에 외측억제가 작용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통괄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Dijksterhuis 등이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특성 억제가설은 기억 절차에서도 재검증되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관련 특성들의 접근용이성과 상호작용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억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이 제안한 부정 연합에 의한 설명과는 달리, 외측 억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자극은 통상 매우 복잡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이런 사회적 자극을 처리하는 인간의 정보처리 체계는 가용한 처리자원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에서 자원이 제한된 처리자로서 지각자는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단순화 인지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Taylor, 1981).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 전략이 사회적 범주화(social categorization)이다. 사회적 범주

화란 대상이나 사건을 그것이 갖고 있는 개별 특성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속한 일반적 범주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범주화된 대상은 그 대상이 속한 일반적 범주의 속성이 부여된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에는 역할, 직업, 집단, 사건 범주 등 다양하다(Cantor & Mischel, 1979).

고정 관념적 처리(stereotyping)는 사회적 범주화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것은 사회적 범주화 과정을 통해

서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할당이 되면, 이 대상은 그 집단의 일반적 속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하는 많은 판단은 고정관념적 처리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요즘은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구내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노숙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마 그를 실직자로 범주화할 것이다. 이 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고유한 특징은 고려되지 않고, 그는 실직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 특징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다. 즉 우리는 그를 궁핍하고, 좌절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처럼 고정관념적 처리는 우리의 정보처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준다. 사람들이 사회적 자극을 고정관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Macrae, Milne, & Bodenhausen, 1994).

본 연구는 인지적 접근에 근거하여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활성화된 고정관념이 이것과 관련된 일치, 반대, 무관 특성 등에 미치는 촉진적, 억제적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과거의 고정관념 연구에는 여러 접근이 존재하였지만 특히 사회집단에 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Brigham, 1971; Gilbert, 1951; Karlins, Coffman, & Walters, 1969).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고정관념이 사회적 지각, 판단,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고정관념의 인지과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Hamilton & Sherman, 1994). 이러한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사회적 정보처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주의 할당(Bodenhausen, 1988), 행동의 해석(Darley & Gross, 1983; Kunda, Sherman, & Williams, 1992; Sagor & Schofield, 1980), 추론 형성(Bodenhausen & Wyer, 1985; Krueger & Rothbart, 1988) 그리고 인출(Bodenhausen & Lichtenstein, 1987; Cohen, 1981; Hamilton & Rose, 1980) 등에 영향을 줌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도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이후의 정보처리를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촉진시킨다는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최일호와 한성열, 1997; Devine, 1989; Dovidio, Evans, & Tyler, 1986; Gaertner & McLaughlin, 1983; Gilvert & Hixson, 1991; Lepore & Brown, 1994; Locke, MacLeod, & Walker, 1994; Macrae, Bodenhausen, & Milne, 1995; Macrae, Stangor, & Milne, 1994; Perdue, Dovidio, Gurtman, & Tyler, 1990; Perdue, & Gurtman, 1990).

최일호와 한성열의 연구(1997)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고대생의 고정관념을 점화시켰을 때, 이후의 자극 대상을 고대생의 대표적 고정관념적 특성인 '집단적' 차원에서 더 집단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¹⁾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의미분척(semantic differential) 절차를 이용하여 고대생의 고정관념을 점화하였다. 그 다음 피험자에게 무관한 과제로 믿게 한 인상판단 과제에서, '집단적' 차원에서 모호한 자극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읽게 하고 자극대상의 성격을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고정관념 점화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자극인물을 더 '집단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동화효과를 보였다.

또한 Macrae 등(1994)이 수행한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특정 사회적 범주 대상(예를 들면, 홀리건²⁾, 아동학대자 등)의 행동, 라이프 스타일, 외모 등을 약 5분간 생각하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 특정 사회 범주의 고정관념이 점화된다. 그리고 무관한 것으로 믿게 한 다음 과제에서 점 패턴(dot pattern)에 숨겨진 특성어 찾거나 단어퍼즐(word puzzle)에서 특성어 찾기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특성어는 해당 사회적 범주와 일치, 무관, 불일치한 것으로 했을 때, 특정 고정관념이 점화된 피험자들은 해당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성을

- 1) 점화된 범주가 항상 동화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따라서 활성화된 범주는 동화효과와 반대되는 대비효과(contrast effect)를 일으킬 수 있다. 매우 잘 기억되는 단서를 점화 자극으로 사용하거나, 대상을 평가한 점화과제를 다시 상기시킬 때와 같이, 점화 자극이 의식상태(awareness)에 있을 때는 활성화된 범주는 해당 범주 차원에서 대상이 그러한 속성을 '더 적게'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대비효과를 발생시킨다(Herr, 1986; Lombardi 외, 1987; Stack 외, 1988).
- 2) hooligan. 유럽의 축구장 난동 패거리.

무관한 특성이나 불일치한 특성어 보다 더 빨리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고정관념 활성화에 따른 촉진 효과라고 한다. 이것은 연합망 모형에 근거하여, 점화된 고정관념으로부터 이것과 일치된 특성으로 활성화가 확산된 것으로 설명된다(Loftus & Collins, 1977).

그러나 최근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촉진 효과 뿐만 아니라 억제 효과도 일으킨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Dijksterhuis & Knippenberg, 1996; Macrae, Bodenhausen, & Milne, 1995). Dijksterhuis와 Knippenberg(1996)는 특정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성은 촉진효과를 보이지만, 반대되는 특성은 적극적으로 억제된다는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특성 억제 가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 활성화에 따른 억제 효과를 회상 절차를 사용하여 억제 효과와 특성의 접근용이성(accessibility)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또한 억제가 일어나는 기제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대안적 가설을 제안하였고, 이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 범주 접근용이성(accessibility)과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적 정보는 통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정보는 우리의 지식, 기대, 욕구 등의 영향을 받아 해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동일한 정보에 접했을 때도 서로 다른 기대나, 동기 등에 의해 각기 다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주어진 자극이나 정보에만 근거해서 처리를 한다면, 즉 상향식(bottom-up) 처리에만 의존한다면 이러한 개인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정보 해석에는 각각의 기대, 동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uner, 1957b).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과 판단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정보에 근거해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판단에 이르는가는 흥미 있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

위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는(beyond the information given) 하향식(top-down) 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 인지 분야의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어 왔다(Bargh, Bond, Lombardi, & Tota, 1986; Erdley & D'Agostino, 1988; Herr, 1986; Higgins, Rholes, & Jones, 1977; Higgins, Bargh, & Lombardi, 1985; Martin, 1986; Srull & Wyer, 1979, 1980).

이 문제 영역에 중요한 공헌을 한 Bruner(1957)는 지각에 미치는 기대와 동기 상태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가 사용한 접근용이성 개념은 주어진 자극이 특정 범주차원에서 부호화 되는 속도나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대나 동기 상태는 일시적으로 관련 범주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높이고, 입력된 자극을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아진 범주 차원에서 지각하거나 해석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Bruner의 이러한 생각은 이후 사회 인지 분야에서 인상 형성, 고정관념적 처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었다(Bargh, Bond, Lombardi, & Tota, 1986; Bargh, Lombardi, & Higgins, 1988; Bargh & Thein, 1985; Higgins, King, & Marvin, 1982; King & Sorrentino, 1988).

오늘날 범주 접근용이성은 특정 범주가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는가 하는 정도, 즉 범주의 활성화 잠재력(activation potential)이라고 정의되는데(Higgins, 1989), 범주 접근용이성 효과란 접근적인 범주(accessible constructs)가 이것이 적용 가능할 때 지각, 해석, 판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어떤 판단에 있어서 두 가지 적용 가능한 범주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범주가 선택되는가는 각각자가 정보에 접했을 때 어느 범주가 더 접근 가능한가(accessible)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접근용이성은 일시적 접근용이성(temporary accessibility)과 만성적 접근용이성(chronical accessibility)으로 나뉘어 진다. 일시적 접근용이성은 최근의 사용이나 접화를 통해서 해당 범주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을 말한다. Higgins 등(1977)은 범주 접근용이성이 모호한 자극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피험자의 특정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일시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는 스트룹 과제(stroop task)를 통해서 '모험심 강한', '무모한' 등과 같은 성격 특성어가 접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화 절차 후, 전혀 별개의 무관한 과제인 것처럼 꾸민 인상형성 과제에서 '조그만 배로 대서양을 횡단할 계획을 세우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극인물을 판단케 하였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접화된 특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였다. 즉 앞의 접화과제에서 '모험심 강한' 특성이 접화된 사람은 상기의 자극인물을 '모험심이 강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 반면, '무모한' 특성이 접화된 사람은 동일한 자극인물을 '무모한' 사람으로 보고, 전반적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이 실험의 의미는 상이한 의미의 특성이 적용될 수 있는 애매한 자극의 판단에서 어떤 특성이 적용되는가는, 판단 시 지각자의 보다 더·접근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리고 **만성적 접근용이성**은 특정 범주에 있어서 과거에 많은 활성화를 경험함으로써 비교적 향상적으로 활성화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 발생한다.(Bargh, Bond, Lombardi, & Tota, 1986; Bargh, Lombardi, & Higgins, 1988; Bargh & Thein, 1985; Higgins, King, & Marvin, 1982; King & Sorrentino, 1988). 개인은 각자 고유한 개인사를 경험함으로써 상이한 범주 활성화수준을 갖는 인지체계를 발달시키게 되고, 이것은 동일한 대상에 접해도 상이한 판단이나 인상형성을 하게 하는 개인차의 중요 원천이 된다.

Bargh와 Pratto(1985)의 연구에서는 만성적 접근용이성을 갖는 특성은 더 쉽게 활성화된다는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피험자들의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특성범주를 알아내어 피험자를 특정 특성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사람(chronics)와 접근 가능하지 않은 사람(non-chronics)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피험자들은 스트룹 절차(stroop task)에서 특성어 색깔을 명명하는 과제를 하였다. 피험자들은 자극 단어가 각 개인에 있어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특성일 때,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색 명명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자극단어가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특성일 때 더 쉽게 의미의 활성화가 일어남으로써 과제에서 요구되는 반응인 색깔 명명의 반응에 더 큰 간섭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Bargh와 Thein(1985)는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주는 처리의 효율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특정 특성 차원(예: kind, honest)에서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사람(chronic)은 이러한 특성이 함의하는 행동을 더 빨리 파악하고, 또한 더 쉽게 기억하였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어떤 자극 인물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이분 청취 과제를 통해서 처리에 부담을 갖은 상태에서 제시받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 만성적 접근용이성을 갖는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에 비해 회상을 더 잘 하였다.

한편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은 범주와 대상간 속성에 있어서의 중복이 있어야 활성화된 범주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범주가 접근용이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용감한'이라는 특성 범주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보이는 행동이 '지적인' 차원과 관련된 행동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활성화된 범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주와 판단 대상간 속성의 중복(mapping)이 있어야 한다(Higgins 등, 1995).

2. 고정관념 활성화가 유발하는 억제 효과

제한된 처리 용량을 갖고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지식, 동기, 목적에 따라서 관련된 것과 무관한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등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 처리의 초기 단계인 지각 단계에서부터 선택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즉 관련된 자극은 선택적으로 더 많은 주의를 받고, 더 높은 활성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후의 정보처리를 보다 효율적이 되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촉진 효과만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하고 다 측면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성공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것이 당분이 많고, 고 칼로리 식품이라는 사실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 이것과 아울러 이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처리와 무관하거나, 대립되는 여타의 자극, 단서들은 적극적으로 억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처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 중다 범주(multiple categories) 대상의 지각에 있어서의 억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람, 대상, 사건 등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측면적이다. 이 중에서도 사람은 매우 복합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나이, 성, 직업, 역할, 국적 등 여러 사회적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중다 범주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인상 형성 등을 할까?

Macrae, Bodenhausen, 및 Milne(1995)은 이러한 의문은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회심리학에서 최근까지 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 주제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다범주 대상 처리에 있어서 억제기제의 작용을 가정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가 중다 범주 대상을 접했을 때 특정 단일 범주를 중심으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여러 범주는 인상 형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하고, 어떤 단일 범주가 선택이 되면 나머지 범주는 적극적으로 억제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1단계에서 여자, 혹은 중국인의 전형적인 성격 특성(예를 들면, 여자-friendly, emotional, 중국인-trustworthy, calm 등)을 지각적 탐색과제(vigilance task)를 통해 역치하 수준(75ms)으로 빠르게 제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피험자들은 여자, 혹은 중국인의 고정관념이 점화된다. 실험 2단계에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중국 옷을 입은 여자를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고 화면의 선명도와 같은 편집의 질을 평가케 하였다.

이 단계는 중다 범주 대상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실험 3단계에서 여자 혹은 중국인의 전형적 성격 특성에 대한 어휘 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제 집단은 실험 1단계에서 중국인과 여자의 고정관념과 무관한 단어들(예를 들면, 지각적 경계과제를 수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활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그리고 실험 3단계에서는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중국인, 여자 관련 특성에 대한 어휘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Macrae 등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여자범주가 점화되어 비디오에 나온 대상을 여자를 중심으로 인상형성을 한 피험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여자의 고정관념적 특성에 대해서는 더 빠른 판단 시간을 보였지만, 중국인의 특성 단어에 대해서는 더 느린 판단시간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인 범주를 선택한 피험자들은 중국인 특성에 대한 판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빨라졌지만, 여자 특성에 대한 판단은 더 느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주간 지배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 이 경쟁에서 밀려난 범주는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제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일 단순히 소멸된다면 반응 시간에 있어서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2-2. 고정관념 활성화에 따른 반대 특성의 억제

고정관념 활성화 후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성에 대한 접근 촉진 효과는 널리 인정되어 왔다(Stangor & Lange, 1994). 그러나 반대 특성에 대한 접근의 억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Dijksterhuis & Knippenberg, 1996). Dijksterhuis와 Knippenberg(1996)는 고정관념 활성화에 따른 불일치 특성에 대한 억제 기제의 작용을 다음과 같은 실험 절차를 통해서 알아 보았다. 실험 1단계에서 전형적인 홀리전을 떠올리고, 이들의 행동 특징, 외모, 라이프 스타일 등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술케 함으로서 홀리전의 고정관념을 점화시켰다. 그리고 이 과제와 무관한 것으로 믿게 한 두 번째 과제에서 사전에 조사된 홀리전의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성어(ag-

gressive, violent, prejudiced, insolent, insurgent, fanatic), 불일치하는 특성어(intelligent, friendly, understanding, industrious, thoughtful, tolerant), 무관한 특성어(spontaneous, adventurous, nervous, introverted, happy, persuasive) 등을 제시하고 어휘 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홀리건과 일치하는 특성어의 경우, 점화 조건에서 반응 시간이 더 빨라졌고, 반면에 반대 특성은 점화조건에서 반응 시간이 더 길어졌다. 그리고 무관 특성은 점화집단과 통제집단간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무관한 특성어를 비교를 위한 기저선(base line)으로 잡았을 때, 일치 특성의 경우에서 가장 빠른 판단 반응을 보인 것은 활성화 확산에 의한 촉진 효과 때문이고, 불일치 특성이 무관한 특성어 보다 더 느린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억제되어 기저선 이하로 활성화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어휘 판단 과제가 아니라 단어 퍼즐을 사용하여 특성 단어를 찾게 한 실험 절차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활성화 확산 기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능동적인 억제 기제의 작용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Dijksterhuis 등(1996)은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고정관념과 반대 특성간 부정 연합(negative association)을 가정하였다. 촉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된 정적 연합(positive association)의 개념과 유사하게, 억제적 활성화를 본질로 하는 부정 연합을 가정하여 결과를 설명하였다. 즉 고정관념과 이것과 반대되는 특성간에는 억제적 활성화를 본질로 하는

부정 연합을 맺고 있고, 따라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반대특성에 억제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3. 연구 문제

지금까지 사회 인지 분야에서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촉진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최일호와 한성열, 1977; Devine, 1989; Dovidio, Evans, & Tyler, 1986; Gaertner & McLaughlin, 1983; Gilvert & Hixson, 1991; Lepore & Brown, 1994; Locke, MacLeod, & Walker, 1994; Macrae, Bodenhausen, & Milne, 1995; Macrae, Stangor, & Milne, 1994; Perdue, Dovidio, Gurtman, & Tyler, 1990; Perdue & Gurtman, 1990). 그러나 최근 들어 억제기제를 가정하는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도 촉진 효과 뿐 아니라 억제 기제도 작용한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Dijksterhuis & Knippenberg, 1996; Macrae, Bodenhausen, & Milne, 199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에서 작용하는 억제 기제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도 Dijksterhuis 등(1996)이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 특성 억제 효과를 회상과제를 통해서 재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왜 반대특성이 억제되는가 하는 점을 기존의 연구자들의 설명과는 다른 대안적 가설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통상 고정관념은 한번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경직성(stereotype rigidity) 경향은 잘 알려져 있다(Kunda & Oleson, 1995; Rothbart & John, 1985; Weber & Crocker, 1983). 이러한 경직성의 원인으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주어진 정보를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또한 고정관념 일치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odenhausen & Lichtenstein, 1987; Crocker, Hannah, & Weber, 1983; Devine, 1989; Sagar & Schofield, 1980).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의 촉진 효과로 설명된다(M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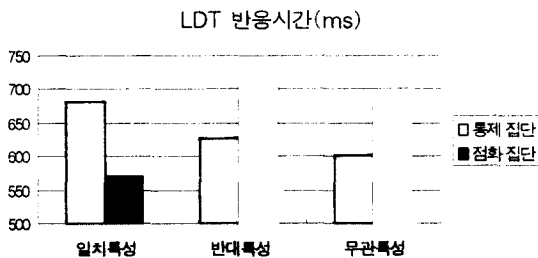


그림 1. 고정관념 점화 후 관련 특성에 대한 평균 반응 시간-Hooligan

rae, Stangor, & Milne, 1994).

그런데 고정관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촉진 효과보다도 불일치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사실 고정관념은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인 경험이나 사실에서 과도하게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지지 증거 못지 않게 반대 증거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엄밀하게 정보처리를 한다면 고정관념은 형성,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고정관념과 불일치 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 형성된 고정관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치 증거를 찾는 것 못지 않게,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상도 사람에 대해 '시끄럽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경상도 사람 중에 과묵하고 차분한 사람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이 많은 반증 사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일치 정보는 적극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제안한 Dijksterhuis와 Knippenberg (1996)는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특성이 억제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홀리건과 교수의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단어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와 주어진 철자 모음에서 유의한 단어를 찾아내는 단어 퍼즐(word puzzle)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홀리건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홀리건의 일치특성에 대한 단어 판단시간은 무점화 집단보다 더 빨라졌지만, 반대특성어에 대한 판단 시간은 더 느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치특성에 대한 촉진효과 뿐 아니라, 반대특성의 접근에 대한 억제를 시사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 판단과제나 단어 퍼즐 절차를 사용한 결과는 반대특성에 대한 접근의 억제를 시사해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정관념의 작용에 대한 의미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휘 판단이나 단어 찾기와 같은 하위 수준의 처리에서 억제 효과를 관찰했기 때문이다. 만일 특성어의 회상 같은 절차에서도 억제 효과가 관찰된다면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 특성 억제 가설은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정관념은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에서 과도하게 일반화된 신념이기 때문에, 이것과 불일치 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고정관념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정관념이 반증 사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불일치 정보는 적극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대상이 고정관념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억제되어 정보처리에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연구 1에서는 Dijksterhuis 등(1996)이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 특성 억제 가설을 깰 때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회상 절차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일 깰 때의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치 특성(예를 들면: 난폭한, 의리있는)에 대한 촉진 효과 뿐 아니라, 반대 특성(예를 들면: 온순한, 지적인)에 대한 회상이 무점화 조건에 비해 줄어드는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기억과정에서도 억제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기억 절차를 고안하기 위한 예비 실험(3)을 시행한 결과, 무점화 조건에서 남/녀 간 깰 때

3) 예비연구에서는 9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깰 때 범주를 점화시킨 후 각각 7개의 깰 때 일치특성, 반대특성, 무관특성을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제시하고 회상을 시켰다. 그 결과 무점화 집단인 통제 집단에서 남/녀의 성차 변인과 특성의 종류(일치/반대 특성)간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 44)=3.09, p<.048$). 남/녀간 특정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에서 접근용이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조건에서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서 남자의 경우 일치특성에서 회상 증가와 여자의 경우 반대 특성에서 회상 감소가 있었지만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비연구의 회상 절차는 일치/반대 특성간의 미적 연결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들은 각 특성어 집단 내에서 서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관계로(예: 난폭한, 거친/얕전한, 온순한 등), 이들은 저장지 서로 유사한 것끼리 연결이 되어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두 종류의 특성어는 서로 의미적으로 대체로 반대이기 때문에(예: 거친 - 얕전한) 이 사실은 저장과 인출을 위한 책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실험효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의 일치 특성과 반대 특성의 회상에서 상호 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44)=3.09, p<.048$). 즉 남자는 일치 특성은 잘 회상하였지만 반대특성은 잘 회상하지 못하였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 특성은 잘 회상하였지만 일치 특성은 잘 회상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에게 깡패 일치 특성은 평상시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은 만성적으로 접근적(chronically accessible)이지만 반대 특성은 상대적으로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고,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이런 경향이 반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이러한 예비 연구의 결과에 따라 남/녀를 피험자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억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Dijksterhuis 등은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반대되는 특성이 억제되는 이유를 고정관념의 범주와 반대 특성간 부적인 연합(negative association)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Loftus & Collins, 1977). 기존에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반복해서 검증된 효과인 촉진 효과는 연합망 모형에 근거하여 범주와 특성간 정적인 연합(positive association)을 가정하고 이것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Srull & Wyer, 1989; Stangor & Lange, 1994). 즉 촉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범주가 활성화되면 정적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위 특성으로 활성화 확산이 전파되어 추가적인 처리 이익(gains)이 생기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Dijksterhuis 등(1996)은 이것과 비슷하게 고정관념 범주와 반대 특성간 억제적 성질을 갖는 활성화를 전파하는 부적인 연합을 가정한다. 이러한 부적인 연합 관계에서는 상위 범주가 활성화되면 연결된 하위 특성에 흥분적인 활성화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억제적 성질의 활성화가 전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 범주가 활성화되면 상위 범주와 부적 연합을 맺고 있는 특성에 대한 접근은 억제적 활성화의 전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촉진 효과와는 달리 억제적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억제가 일어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처리 용량의 보존이나 표상의 응집성(coherence)

을 높이기 위해, 목표자극 이외의 간섭자극이나 분산자극(distractor)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Anderson & Spellman, 1995; Dempster, 1991; Dagenbach & Carr, 1994a; Dempster & Branerd, 1994).

이러한 설명 방식을 따르면 Dijksterhuis 등의 실험 결과는 아직 불명료한 부적 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것과 반대되는 특성들이 억제되는 현상은 일치 특성과 반대 특성간 밀접한 관련⁴⁾으로 인해 고정관념이 점화되었을 때 일치 특성이 활성화되면, 억제 특성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이것은 의미적으로 불일치 하는 두 가지 요소의 동시적 활성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고정관념 표상의 응집성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표상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억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Rosch(1975)는 의미 기억에서 어떤 범주(예: 가구)가 활성화되어 전형적 사례(예: 책상)와 비전형적 사례(예: 발판)가 동시에 활성화 됐을 때, 보다 강하게 활성화되는 전형적 사례는 외측 억제를 통해서 약한 활성화 상태에 있는 비전형적 사례에 대한 접근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고정관념 범주와 하위 속성간에도 이러한 과정과 유사하게 억제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정관념의 점화는 두 가지 다른 활성화 수준을 갖는 일치특성과 반대특성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이질적인 두 요소의 경쟁을 통해 표상의 응집성을 약화시키므로 보다 강하게 활성화된 일치특성이 반대 특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해 비접근적 특성(남자의 경우 깡패 반대 특성)을 억제 하 수준에서 점화하여 접근용이성을 높였을 때 억제가 일어나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2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깡패

4) 대체로 이들은 서로 의미적으로 반대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깡패 고정관념의 경우 난폭한-온순한, 거친-얇전한 등이다. 일치 특성과 반대 특성은 의미적으로 반대이지만, 반대라는 것 자체가 이들 간의 밀접한 정적인 관련을 의미한다.

반대특성에서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은 남자에서는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만일 반대 특성을 사전에 접화하여 이들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인 다음 고정관념을 접화하였을 때,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정관념과 반대특성간 억제적 연결을 통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억제 효과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즉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의한 반대특성에 미치는 억제적 효과는 이들을 사전에 접화를 함으로서 야기된 흥분적 활성화에 의해 상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잠재적 간섭을 약화시킴으로써 표상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억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외측 억제적 설명은 억제 효과를 예측한다. 즉 사전에 억지하 접화를 통해서 사전에 반대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약하게 활성화될 반대특성은 더 강하게 흥분적 활성화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치 특성에 대해 더 강한 간섭 효과를 야기할 것이고 따라서 더 강한 억제가 예측되는 되는 것이다.

II. 연구 1: 고정관념 활성화에 따른 회상에 대한 촉진과 억제 효과

연구 1에서는 Dijksterhuis과 Knippenberg(1996)가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특성 억제 가설을 회상 과제를 통해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휘 판단과제(LDT)와 단어 퍼즐(word puzzle) 절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 수준의 절차에서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정보처리라는 상위 수준의 처리에 주는 시사점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에 보다 직접적 함의를 갖는 회상절차를 사용하여 강패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반대특성 억제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그런데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기억절차를 고안하기 위한 예비 연구에서 강패 고정관념에 있어서 남자는 일치 특성을, 여자는 반대 특성을 잘

회상하는 성차와 특성이 종류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는 강패 일치 특성이 상대적으로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고, 반면에 여자는 강패 반대 특성이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비 연구의 이런 결과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회상과제에서는 과제의 특성상 자극 특성어간 의미적 연결이 쉽게 일어나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조건을 일치, 반대, 무관특성을 한 피험자에게 같이 제시하지 않고, 일치 - 무관, 반대 - 무관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였다.

가설: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접화 집단은 무점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일치특성에 대한 회상은 증대되고, 반대 특성에 대한 회상은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무관 특성에 대한 회상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즉 일치 특성에서는 촉진효과가, 반대 특성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여 대학생 181명(남자: 91명, 여자: 90)이 실험에 참가하여 남/녀 각각 무선적으로 4개 조건에 할당되었다. 여기서 4개의 조건이란 무점화 - 접화의 2조건과 (일치/무관) - (반대/무관)의 2조건 간 4가지 조합을 말한다.

자극 재료: 실험에서 사용할 강패 일치특성, 반대특성, 무관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40명의 대학생에게 56개의 특성 형용사를 주고 이것을 9점 척도 상에 강패와의 관련 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자는 각 특성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강패의 특성과 일치하는 정도를 '매우 그렇다 - 9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치특성 7개 - 난폭한, 거친, 의리있는, 무례한, 성질 급한, 폭력적, 집단적(평균: 7.72 표준편차: 1.2), 반대특성 7개 - 온순한, 다정한, 친절한, 얌전한, 겸손한, 지적인, 차분한(평균: 2.51 표준편차: 1.4) 무관특성 14개 - 자발적, 보수적, 솔직한, 유쾌한, 우울한, 예민한, 의존적, 경솔한, 고집센, 행복한, 당돌한, 야무진, 웅졸한, 개방적)을 기억 자료로 사용하였다(평균: 5.13 표준편차: 1.8).

여기서 무관특성의 수를 다른 특성보다 많이 제시하는 것은 일치 반대특성간 의미적 연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서 허위 항목(filler)으로 과일 이름 10개(감, 자두, 복숭아, 대추, 호두, 앵두, 유자, 사과, 배, 수박)를 추가하였다.

자극 제시: 조건에 따라 쌍패의 (일치특성 - 무관특성 - 과일), 혹은 (반대특성 - 무관특성 - 과일)의 단어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무작위로 1초간 보여주고, 단어간 제시 간격을 2초(SOA 3초)로 하여 제시하였다.

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자는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연구는 두 가지라고 말해 주었다. 실험 첫 단계에서 실험자는 지금 여러 사회집단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주면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할 대상은 쌍패라고 하였다. 피험자에게 간단히 조사의 목적을 말해주고, 전형적인 쌍패의 행동방식, 외모, 생활방식 등을 4분 동안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Macrae, 1994). 이 단계에서 실험 집단은 쌍패의 고정관념이 점화된다. 실험 2단계에서는 피험자에게 지금부터 할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기억에 관한 연구라고 말해 주었다. 절차는 2초 간격으로 특성 형용사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고 여러분의 과제는 이것을 잘 보고 단순히 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단어 제시가 끝나면 종이를 나누어주고 간단한 굵셈을 한 후 외운 특성어를 적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은 실험실에서 4분 동안 조용히 대기시킨 후 실험집단과 동일한 기억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설계: 성차(남/여)×점화(점화/무점화)×특성어 종류(일치/반대/무관특성)의 2×2×3의 요인설계에서 특성어가 반복 측정된 혼합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된 점화 집단은 무점화 집단에 비해, 일치특성의 회상은 증대되고 반대 특성의 회상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점화 여부와 특성어 종류간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 검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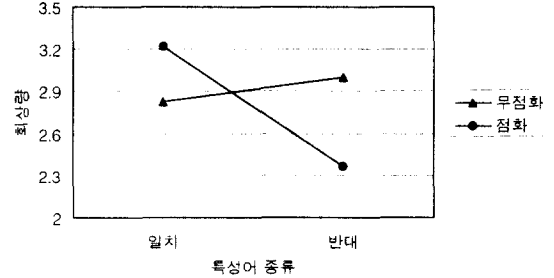


그림 2. 점화/무점화와 특성어 종류간 상호작용

표 1. 고정관념 점화에 따른 특성어 평균 회상량(회상단어 갯수)

	일치	무관	반대	무관
무점화	2.83a(.97)	5.02e(1.31)	3.0ab(1.24)	5.22e(1.47)
점화	3.22b(.83)	4.93e(1.51)	2.37d(1.32)	5.54e(1.32)

주: 상이한 알파벳은 유의한 평균 차이를 의미($p < .05$) ()는 표준 편차

실험 결과, 점화와 특성 종류간 상호작용 효과($F(1, 179)=10.6, p < .001$)는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과 그림 2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가설에서 예언한대로 고정관념 점화 집단은 무점화 집단에 비해 일치특성에서는 회상의 증진을 보였지만, 반대특성에서는 회상의 감소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일치특성에 대해서는 촉진 효과를, 반대특성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를 미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치특성에서 고정관념 점화에 의한 회상증진은 유의하게 나타났다($t(89)=-2.09, p < .039$). 또한 반대특성에서는 유의한 회상감소가 나타났다($t(89)=2.34, p < .021$). 그러나 무관특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일치나 반대특성과 무관특성간 회상량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각의 특성의 사용 갯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억 재료로서 일치특성(혹은 반대특성)은 7개를 사용한다면, 무관특성은 14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관특성의 회상량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적절한 실험절차를 고안하기 위한 예비연구에서 일치특성과 무관특성을 동시에 하여 제시하였을 때, 유의하게 ($p < .01$) 일치특성이 더 잘 회상되었다. 이것은 일치특성

표 2. 남/녀를 구분한 고정관념 점화에 따른 특성어 평균 회상량

	남				여			
	일치	무관	반대	무관	일치	무관	반대	무관
무점화	3.12(.97)	4.7	2.5(1.3)	4.86	2.54(.59)	5.37	3.48(.99)	5.56
점 화	3.63(.88)	4.17	2.2(1.1)	5.14	2.77(.61)	5.73	2.5(1.2)	5.92

()는 표준편차

그리고 상기의 결과를 남녀로 구분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를 표 2로 제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성차와 특성어 종류간 회상량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남자는 강패 일치특성을 잘 회상하는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을 잘 회상하였다.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 1의 자료를 재분석해 본 결과, 성차와 특성어의 종류간 상호작용 효과는 예비 연구에서와 같이 반복해서 나타났다($F(1, 179)=18, p<.000$). 즉 남자는 강패 일치특성을 잘 회상하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을 잘 회상하는 경향이 반복해서 관찰되었다. 이것은 남/녀 간 강패의 일치특성과 반대특성의 만성적 접근용이성(chronical accessibility)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는 강패 일치특성의 평상시 활성화 수준이 높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의 평상시 활성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에 노출되었음에도 남녀간 회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간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강패의 일치 특성(예: 거칠다, 의리있다, 집단적 등)은 대체로 극단적인 남성성의 특징이고, 따라서 남자들의 사용빈도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여자들은 강패의 반대특성(예: 온순한, 얌전한, 다정한 등)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다면, 이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여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자들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일치특성에서 고정관념 점화에 의한 회상증진은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못하였지만($t(45)=1.95, p=.058$), 충분한 경향성이 관찰되었

다. 이것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치특성에 대한 촉진 효과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특성어에서는 약간의 회상 감소($d=-0.3$)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42)=.658, p=.51$). 즉, 반대 특성에는 기대했던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자의 경우 무점화/점화 집단간 반대 특성어에서 유의한 회상 감소가 관찰되었다($t(45)=3.01, p<.004$). 이것은 유의한 억제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치 특성에서 약간의 회상 증진이 있었지만($d=0.23$),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42)=1.25, p=.22$). 이런 결과는 여자의 경우 일치특성에서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관특성은 모든 조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없었다.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Dijksterhuis 등(1996)이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 특성 억제 가설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회상 절차에서도 지지되었다. 즉 강패 고정관념을 점화하였을 때 무점화 집단에 비해 일치특성의 회상은 증대되었지만 반대특성에 대한 회상은 감소하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무관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관련된 특성의 회상에도 촉진이나 억제 효과를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에서는 남자의 경우 일치특성에서 촉진효과($p=.058$)가 $\alpha=.05$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촉진의 경향성은 있었다. 그리고 반대특성에서 억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의 경우는 일치특성에서 촉진효과는 없었고, 반대특성에서는 유의한 억제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결과인데, 이것은 남녀간 강패 관련 특성어에서 만성적

이 서로 의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기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무관특성의 수를 늘려서, 기억자료로 제시되는 일치 특성어들의 관련성을 약하게 하고자 하였다.

접근용이성에서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즉 남자는 반대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점화되었을 때 일치특성에서 활성화가 전파되더라도 활성화 수준이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치특성에 대한 간접적 영향이 약하고 결국 억제 효과도 약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충분한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반대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쾌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른 반대특성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표상의 응집성을 위한 억제가 그 만큼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관념과 관련된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과 촉진/억제 효과의 상호작용은 기존의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특성 억제가설의 일반성을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어떤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항상 일치특성은 촉진되고 반대 특성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성의 접근용이성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떤 고정관념과 관련된 일치, 반대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다면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다라든 촉진이나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한 Bargh 등(1986)의 연구에서는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은 범주에 대해서 촉진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실험에서는 ‘친절한’ 차원에서 만성적으로 접근적(chronic)인 사람과 만성적으로 비접근적(non-chronic)인 사람을 구분한 다음, 비접근적인 사람(non-chronic)을 대상으로 ‘친절한’ 관련 특성들을 일치하 점화를 하였다. 그 다음 대상에 대한 인상평가 과제를 실시하였다. 11점 척도를 사용하여 ‘친절한’ 차원에서 대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점화 집단과 비점화 집단의 평가값은 각각 6.9, 6.7이었다. 그리고 접근적인 사람(chronic)의 경우는 각각 7.8과 7.2였다. 비접근적인 사람(non-chronic)의 경우 11점 척도에서 촉진 효과의 평균 크기는 0.2 정도인데 이러한 정도의 크기는 상당히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chronic의 경우는 효과의 크기가 0.6 정도이다. 이런 결과에서 보듯이 친절한 차원에서 비접근적인 사람은 친절한 범주가 점화되더라도 효과의 크기가 접근적인 사람의 경우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점화 효과와 chronicity 효과간 상호 작용 효과를 검토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F(1, 211)=1.32, p=.25$). 여기서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것은 비접근적인 사람(non-chronic)에서도 점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접근적인 사람의 경우 점화 효과는 접근적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따른다면 본 연구의 결과도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은 특성에 대해서 촉진이나 억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효과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강쾌 고정관념이 점화되었을 때 남자의 경우 반대특성, 여자의 경우 일치특성도 각각 억제나 촉진 효과를 받기는 하지만 단지 효과의 크기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연구 2: 고정관념 반대 특성 일치하 점화 후 억제 효과

연구 2에서는 고정관념이 점화되었을 때 반대특성이 억제되는 이유를 알아보려 하였다. Dijksterhuis 등(1996)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수직적(vertical) 억제라고 명명하면서, 고정관념과 반대특성간 억제적 활성화를 본질로 하는 부적 연합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측 억제(수평적 억제)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외측 억제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부적 연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실험 절차를 고안하여 어느 쪽 설명이 타당한지 알아보았다. 즉 연구 1에서 남자 피험자들에서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어도 강쾌 반대특성의 회상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러한 특성이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아, 일치특성에 간접적 영향이 적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만일 고정관념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러한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높아진다면 억제 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향상된 반대특성의 활성화 수준으로 인해 일치 특성에 대한 간접적 영향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적 연합을 가정하는

설명은 이러한 예언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예측한다. 즉 고정관념이 활성화되기 전에 반대특성이 점화되어 접근용이성 수준이 증대되면 이것의 흥분적 활성화가 고정관념 점화에 의한 억제적 영향을 상쇄함으로 억제 효과가 없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반대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역치하 점화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높였을 때, 억제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만일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부적 연합을 가정한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외측억제 기제로는 잘 설명될 수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가설: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은 고정관념의 반대 특성이 사전 점화된 상태에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반대 특성에 대한 회상은 무점화 집단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즉 반대 특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남자 대학생 4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반대 특성 역치하 점화 절차: 깡패 반대특성 6개(온순한, 얇전한, 다정한, 친절한, 겸손한, 차분한)와 중립적 단어(하지만, 어떻게) 2개를 무선적으로 역치하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깡패 반대 특성을 역치하 수준으로 제시하기 위해 Bargh와 Pietromonaco(1982)가 사용한 방법대로, 지각적 경계 과제(vigilance task)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앙에 있는 고정점(fixation point)을 응시한 상태에서, 이것에서 약 3.5cm 떨어져 사분면에 제시되는 단어의 위치를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고정점으로 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자극을 제시하는 것은 망막의 중심와 영역에 자극이 맺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피험자는 자극을 인식하기 어렵다. 피험자는 빠르게 제시되는 자극의 위치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하였다. 자극제시 시간은 100ms로 하였고, 제시 후 바로 ****으로 차폐(masking)하였다. 자극간 간격은 2-5초 사이에서 무선적으로 하였고,

사분면 상에서 자극 발생 위치는 불규칙하게 하여 예측을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와 컴퓨터 화면과의 거리는 대략 56cm가 되도록 피험자가 응답하기 전 의자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자극 제시 횟수는 총 80회로 하였다.

피험자들은 평가 조건과 추측 조건으로 나뉘었다. 평가 조건의 피험자는 80회의 응답을 한 후 다음 실험 과제를 수행하였다. 반면 추측 조건의 피험자 10명은 역치하 자극에는 노출되지만 탐색과제는 하지 않고, 제시되는 자극이 단어임을 알려주고 이것을 맞추어 보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극이 역치하 수준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작 확인 절차이다.

기억 자극재료 및 제시 방법: 본 실험에서는 실험 1에서 사용한 반대특성 7개 - 온순한, 다정한, 친절한, 얇전한, 겸손한, 지적인, 차분한(평균: 2.51 표준편차: 1.4), 무관특성 10개 - 자발적, 솔직한, 우울한, 예민한, 의존적, 경솔한, 당돌한, 야무진, 웅졸한, 개방적(평균: 5.11 표준편차: 1.72)을 기억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허위 항목(filler)으로 과일 이름 10개(감, 자두, 복숭아, 대추, 호두, 앵두, 유자, 사과, 배, 수박)를 추가하였다. 자극 제시 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단어를 1초간 보여주고, 단어간 제시 간격은 2초(SOA 3초)로 하여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절차: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피험자들에게 우선 깡패 반대 특성들을 역치하 수준에서 제시하는 지각적 경계 과제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는 이 과제를 빠르게 제시되는 자극의 위치를 판단하는 과제라고 하였다. 피험자에게 고정점을 응시한 상태에서 고정점을 중심으로 사분면에서 제시되는 자극을 위-아래는 무시하고 왼쪽, 오른쪽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위치 탐색과제가 끝나면 실험조건의 피험자들은 4분간 실험 1의 절차와 같은 깡패 고정관념을 점화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고정관념 점화 절차가 끝나면 피험자에게 깡패 반대특성, 무관특성, 과일 이름 등의 기억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무선적으로 제시한 후 외우게 하는 기억과제를 실시하였다. 단어 제시가 끝나면 피험자들은 간단한 곱셈을 한 뒤 외운

단어를 회상하였다. 통제 조건의 피험자들은 역치하 자극제시 과제를 한 후 깡패 기술과제를 하지 않고 4 분간 조용히 대기한 다음 기억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설계: 점화(점화/무점화)×특성어 종류(반대/무관)의 2×2 요인설계에서 특성어가 반복 측정된 혼합 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역치하 점화 조작 확인: 각 피험자에게 깡패 반대특성어 6개와 중립적 단어 2개를 각각 10번씩 총 80회를 제시하였다. 10명의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이 단어임을 알려주고 자극이 제시된 후 바로 단어를 추측하게 한 결과, 피험자들은 단어의 추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총 800번의 시행에서 정확한 답변은 11회였고 정확율은 1.37% 였다. 이런 결과는 단어가 충분히 역치하 수준에서 제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험 2에서는 사전에 반대특성을 점화한 후 고정관념을 점화하였을 때 반대특성어의 회상 감소를 예측하였다. 실험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점화 집단에서 무점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회상 감소(3.23-2.65=.58)가 있었다($t(44)=-2.07, p<.044$).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반대특성의 활성화 수준이 높을수록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Dijksterhuis 등(1996)이 억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부적 연합 모형은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모형에서는 고정관념의 반대특성의 활성화 수준이 높을수록 약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억제 현상에 대한 외측 억제에 의한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점화와 특성어 종류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43)=9.16, p<.003$).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반대특성어는 통제 집단에서 회상을 잘 하고, 무관특성어는 점화 집단에서 회상을 잘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의 점화가 무관특성어에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의 실험절차는 단기기억에 의존하는 회

표 3. 반대특성 역치하 점화 후 고정관념 점화에 따른 특성어 평균 회상량

	반대특성	무관특성
무점화	3.23a(.87)	3.14ab(1.04)
점화	2.65b(.98)	3.61a(1.27)

주: 상이한 알파벨은 유의한 평균 차이를 의미($p<.05$)
()는 표준 편차

상과제로서 피험자들은 대체로 고정된 단기기억 용량 만큼을 기억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점화집단에서 반대특성에 대한 회상이 줄어들면 대체로 그것에 상응하는 무관단어의 회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점화 집단에서 반대특성에 대한 회상이 줄어들어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실험 1의 결과에서는 남자의 경우 반대 특성이 억제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깡패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반대 특성을 역치하 수준에서 점화시킴으로서 이들 특성의 접근용이성을 높여 주었을 때는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추론해 볼 때,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 특성이 억제되는 것은 고정관념 범주와 반대 특성간에 부적 연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이질적인 두 특성이 동시에 활성화됨으로서 표상 내 간섭이 야기되고, 이것을 약화시키기 위해 억제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상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즉 반대 특성을 역치하 수준에서 점화시킴으로서 접근용이성을 높였음에도 회상량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억제 기제를 가정하지 않는 상식적인 예측은 사전에 특정 개념의 활성화 수준을 증대시킨 상태에서 이것에 활성화를 약화시키는 억제 효과가 작용한다면, 사전에 활성화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약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진된 활성화 수준이 억제적 영향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능동적 억제기제의 작

용을 가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억제기제는 부적 연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측 억제의 작용 때문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V. 종합논의

범주(constructs)나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이것은 이후의 정보처리를 이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촉진한다는 결과는 많은 연구에서 반복해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범주의 활성화는 촉진 효과 뿐 아니라, 반대되거나 경쟁하는 다른 범주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억제 효과도 일으킨다는 가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1, 2를 통해서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기억과정에서 반대 특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았고, 억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다른 대안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연구 1에서는 Dijksterhuis 등(1996)이 제안한 고정관념 활성화 후 반대특성 억제 가설을 새로운 기억 절차를 통해서 재검토 해보았다. 여기서는 깡패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고정관념이 점화된 집단은 무점화 집단에 비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특성은 더 잘 기억하고, 반대되는 특성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예상된 특성어 종류와 점화/무점화 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고정관념이 점화된 집단에서 일치특성은 더 잘 회상하고 반면에 반대특성은 회상을 잘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관특성에서는 점화/무점화 조건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의 점화는 일치특성에 대해서는 촉진 효과를, 반대특성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를 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억제기제를 가정하지 않고 활성화와 확산만을 가정하는 연합망 모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이런 모형에 따른 설명은 활성화 총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 개념에 활성화 확산이 집중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에는 활성화가 적게 전파되고 따라서 두

특성에 대한 회상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치특성은 반대특성보다 고정관념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정관념이 점화되었을 때 활성화 전파는 일치특성 쪽으로 몰리고 반대특성에는 활성화 전파가 되지 않음으로 처리의 이익이 일치특성에만 작용하여 일치특성과 반대특성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설명이 성립한다면 억제의 개념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본 실험에는 적용될 수 없다. 본 실험에는 이러한 설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반대특성과 무관특성만을 같이 제시하고 점화와 무점화 집단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만일 억제 기제를 가정하지 않고 활성화 촉진만으로 설명하는 모형에 따른다면 일치/무관특성에서 촉진 효과는 예측하지만, 반대/무관특성에서 반대특성의 회상이 줄어드는 경향은 예측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이 조건에서는 일치특성이 없으므로 이것에 활성화가 집중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점화/무점화 조건간 차이를 예측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과는 이 조건에서 점화 집단은 반대 특성에서 회상감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능동적 억제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1에서는 두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는 성차와 특성어 종류간 상호작용 효과이다. 이것은 남자는 깡패 일치특성을 잘 회상하였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을 잘 회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결과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남녀간 특성어 종류에 따른 회상량의 차이를 만성적 접근용이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였다. 남자는 깡패 일치특성이 평상시 활성화 수준이 높은 만성적으로 접근적인 특성이지만 반대특성은 상대적으로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이 만성적으로 접근적이지만 일치특성은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녀간 회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녀간 깡패 일치, 반대특성간 접근용이성 수준의 차이는 왜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아마도 문화적 차이가 개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패 일치특성(예를 들면: 거친, 의리있는, 집단적 등)은 약간 극단적인 남성성을 의미하고 반면에 반대특성(예를 들면: 양전한, 온순한, 다정한 등)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특성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체로 이성 간 보다는 동성간 교류가 더 많기 때문에 남자는 남성성에 해당하는 특성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여자는 여성성을 나타내는 특성어를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자는 대체로 일치특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이런 특성이 만성적으로 접근적이 되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이 만성적으로 접근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예상치 않은 결과는 남자에서는 일치특성을 잘 회상하는 촉진 효과는 나타났지만,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반면에, 여자는 반대특성에 대한 회상이 줄어드는 억제 효과는 나타났지만 촉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일치/반대 특성간 접근용이성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즉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촉진, 억제 효과는 접근용이성이 낮은 특성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argh 등(1986)의 연구에서도 만성적으로 비접근적인 특성은 점화되어도 동화효과가 약하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고정관념이 점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촉진/억제 효과는 그 일반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효과는 관련된 특성이 어느 정도의 접근용이성 수준에 있을 때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접근용이성 수준이 낮을 때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결론은 단지 하나의 특정한 고정관념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제기 된다고 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유의한 촉진이나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관련특성이 어느 정도의 접근용이성 수준이 있어야한다는 가설을 제안하고, 억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설명과는 다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은

억제의 이유로서 고정관념과 반대특성간 억제적 활성화를 전파하는 부적연합을 가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기존의 설명과는 다르게 외측억제에 의한 설명을 제안하고 이것의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실험의 논리는 고정관념을 활성화하기 전에 간접적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높였을 때 이것에 대한 억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고정관념과 반대특성간 단순한 억제적 연결을 가정하는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가 된다. 이 모형에서는 억제적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즉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의한 반대특성에 미치는 억제적 효과는 이들을 사전에 점화를 함으로서 야기된 흥분적 활성화에 의해 상쇄가 될 것이 때문이다.

반면에 잠재적 간섭을 약화하여 표상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 억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외측 억제적 설명은 억제 효과를 예측한다. 이것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억치하 점화를 통해서 사전에 반대 특성의 접근용이성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약하게 활성화될 반대특성은 더 강하게 흥분적 활성화 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치 특성에 대해 더 강한 간섭 효과를 야기 할 것이고 따라서 더 강한 억제가 예측되는 되는 것이다.

실험 결과, 고정관념을 점화하기 전에 반대특성이 억치하 수준에서 점화된 남자 피험자 집단에서는 실험 1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유의한 회상감소가 나타났다. 즉 억제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고정관념과 반대특성간 부적연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고정관념 표상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적 요인을 억제한다는 외측 억제적 설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1에서 강패 관련 특성의 접근용이성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들의 회상량의 차이로 단지 가정한 점이다. 통상 만성적 접근용이성을 알아내는 방법은 Higgins 등(1982)이 사용한 절차이다. 이 절차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귀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특성의 리스트를 기술하게 하

여 각 개인의 기술 리스트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거나, 자주 나타나는 특성으로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한 특성(chronically accessible)을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리스트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특성은 그 개인에 있어서 만성적으로 접근가능하지 않은(chronically inaccessible) 특성이 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본 연구의 가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기존의 만성적 접근용이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강패 일치특성에서 접근적인 사람과 비접근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정관념의 점화에 따른 촉진/억제 효과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은 연구 2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강패 고정관념의 일치특성(예를 들어: 난폭한)을 점화 자극으로 제시한 후 목표자극을 반대특성(예를 들어: 온순한)을 제시하여 반응시간을 측정하였을 때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빠른 판단 시간을 보인다면 이것은 이들 간 정적 관련을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점화 한 후 이 절차를 적용했을 때 목표 자극(반대특성)에 대한 판단 시간이 더 느려진다면 본 실험의 가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정관념의 활성화에 따른 억제 효과를 기존의 어휘판단을 통한 연구나 본 연구에서처럼 회상 절차에서 뿐 아니라, 직접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정관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반대 특성의 차원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이 억제가 되었을 때 이것은 인상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최일호 · 한성열(1997). 고정관념 활성화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Allport, C.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Banaji, M. R., Hardin, C., & Rothman, A. J.(1993).

Implicit stereotyping in Person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272-281.

Bargh, J. A., Bond, R. N., Lombardi, W. J., & Tota, M. E.(1986). The additive nature of chronic and temporary sources of construct acces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69-878.

Bargh, J. A.(1989). Conditional automaticity: Varieties of automatic influence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In J. S. Uleman and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pp.3-51). New York: Guildford.

Bargh, J. A., Lombardi, W. J., & Higgins, E. T. (1988). Automaticity of chronically accessible constructs in person \times situation effects on person perception: It's just a matter of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599-605.

Bargh, J. A., & Thein, R. D.(1985).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person memory, and the recall-judgment lin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29-1146.

Bodenhausen, G. V.(1988). Stereotypic biases in social decision making and memory: Testing process models of stereotype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26-737.

Bodenhausen, G. V., & Lichtenstein, M.(1987). Social stereotyp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The impact of task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71-880.

Bodenhausen, G. V., & Wyer, R. S., Jr.(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Brewer, M. B.(1988). A dual process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In R. S. Wyer, Jr. & T. K. Srull(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Vol.1,

- pp.1-36). Hillsdale, NJ: Erlbaum.
- Bruner, J.(1957). On perceptual readiness. *Psychological Review*, 64, 123-152.
- Carlston, D. E.(1980). The recall and use of traits and events in social inference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303-328.
- Cantor, N., & Mischel, W.(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303-328.
- Carr, T. H., & Dagenbach, D.(1990). Semantic priming and repetition priming from masked words: Evidence for a center-surround attentional mechanism in perceptual recogni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6, 341-350.
- Collins, A. M., & Loftus, E. F.(1975).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processing.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1995a). Timing of schema-activation and memory: Inhibited access to inconsistent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383-390.
-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1995b). *A posteriori stereotype-activation: Inhibited access to inconsistent inform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ijmegen.
- Dijksterhuis, A., & van Knippenberg, A.(1996). The knife that cuts both ways: Facilitated and inhibited access to traits as a results of stereotype act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271-288.
- Dovidio, J. F., Evans, N., & Tyler, R. B.(1986). Racial stereotypes: The contents of their cognitive re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22-37.
- Dovidio, J. F., & Gaertner, S. L.(1993). Stereotypes and evaluative intergroup bias. In D. M. Mackie and D. L. Hamilton(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San Diego: Academic Press.
- Erdley, C. A., & D'Agostino, P. R.(1988). Cognitive and affective components of automatic priming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41-747.
- Fiske, S. T., & Neuberg, S. L.(1990). A continuum model of impression formation from category-based to individuating processes: Influences of information and motivation on attention and interpretation.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3, pp.1-74). San Diego: Academic Press.
- Gernbacher, M. A., & Faust, M. E.(1991). The mechanism of suppression: A component of general comprehension skil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7, 245-262.
- Gilbert, D. T., & Hixon, J. G.(1991). The trouble of thinking: Activation and applicat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09-517.
- Higgins, E. T., & Bargh, J. A.(1987). Social cognition and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369-425.
- Higgins, E. T., Bargh, J. A., & Lombardi, W.(1985). The nature of priming effects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59-69.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1-154.
- Houghton, G., & Tipper, S. P.(1994). A model of inhibitory mechanisms in selective attention. In Dagenbach, D., & Carr. T.(Eds.) *Inhibitory mechanism in attention, memory, and language*. San Diego: Academic Press.(pp.53-112)
- Kunda, Z., & Oleson, K. C.(1995). Maintaining stereo-

- types in the face of disconfirmation: Constructing grounds for subtyping devi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65-579.
- Macrae, C. N., Bodenhausen, G. V., & Milne, A. B. (1995). The dissection of selection person perception: Inhibitory processes in social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97-407.
- Macrae, C. N., Milne, A. B., & Bodenhausen, G. V. (1994). Stereotypes as energy-saving devices: A peek inside the cognitive toolbox.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7-47.
- Macrae, C. N., Stangor, C., & Milne, A. B. (1994). Activating social stereotypes: A functional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70-389.
- Pendry, L. J., & Macrae, C. N. (1994). Stereotypes and mental life: The case of the motivated by thwarted tacticia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03-325.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 (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Perdue, C. W., & Gurtman, M. B. (1990). Evidence for the automaticity of age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99-216.
- Smith, E. R. (1990). Content and process specificity in the effects of prior experiences. In T. K. Srull & R. S. Wyer, Jr. (Eds.), *Advances in social cognition* (Vol. 3, pp. 1-59). Hillsdale, NJ: Erlbaum.
- Srull, T. K., & Wyer, R. S., Jr. (1980). Category accessibility and social percep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person memory and interpersona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41-856.
- Stangor, C., & Lange, J. E. (1994). Mental representations of social groups: Advances in understanding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357-416.
- Taylor, S. E. (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pp. 88-114). Hillsdale, NJ: Erlbaum.
- Wyer, R. S., & Srull, T. K. (1986). Human cognition in its social context. *Psychological Review*, 93, 322-359.

The Effect of Stereotype Activation on Facilitation and Inhibition

IL-Ho Choi & Seong-Yeal Han

Korea University

Facilitatory and inhibitory effects of stereotype activation on recall of traits were studied. And the reason for what stereotype activation have an inhibitory effect on inconsistent traits was also studied. It was proposed that priming a category level would improve recall of stereotype-consistent traits and obstruct recall of inconsistent traits. In first experiments, primed subjects were compared to no-primed control subjects, and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consistent, inconsistent, irrelevant traits. The predicted facilitatory and inhibitory effects were both obtained, suggesting that stereotype activation actively increase the retrieval probability of consistent traits and also actively decreases the retrieval probability of inconsistent traits. And second experiment showed that when stereotype is activated, the reason why inconsistent traits is inhibited was not because of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 stereotype and its inconsistent traits but because of lateral inhibition in order to improve a representation coherence. The implications of my findings with respect to impression formation and stereotyping are discussed.